

이 자료는 12월 2일(목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월 1일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보 도 자 료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한국판뉴딜  
대한민국 대전환

-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박성호 실장(044-300-0750), 강혁구 주임(044-300-0752)
-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4-300-0230), 정민규 책임(044-300-0231)

## **TIPA, VC투자 받기 어려운 비수도권 혁신기업 투자설명회 추진**

- 기업·하나은행 협력으로 마련된 투자자금 1,300억원 활용 투자지원 -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은 벤처투자를 받기 어려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'비수도권 R&D 수행기업 투자설명회'를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.
- 올해 초 TIPA는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망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 R&D 자금을 전담하여 예치하는 전담은행인 기업은행,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R&D 수행기업 대상 투자자금 1,300억원을 마련했다.
-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, 8월에 이어 R&D 전담은행의 투자자금을 투자유망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 번째 투자설명회다.
- 최근 벤처투자 현황을 보면, 바이오·ICT 등 특정 분야와 수도권 기업에 투자가 편중되는 경향이 많아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기업들은 벤처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.

- TIPA와 전담은행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,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R&D기업을 발굴하여 전담은행 사전검토를 통해 투자설명회 대상기업을 선발했다.

- 참여기업은 (주)파인나노, (주)제라브리드, (주)네이처모빌리티 등 32개사이며, 20분 동안 발표·질의응답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장점을 집중 설명해 투자심사역(VC)에게 기업을 어필한다.

- 투자설명회 이후 참여기업은 전담은행의 별도 투자심사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지원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며, 투자된 자금은 개발제품과 기술의 사업화 자금으로 활용하게 된다.

- (주)제라브리드 송승원 대표는 “자사는 다수의 고객사들이 해외에 있어 코로나로 인해 수출실적 등 투자사들의 관심을 끌만한 실적창출이 늦어진 상황이었다.”라며 “이번 비수도권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투자설명회가 자사의 검증된 기술력과 성장성을 투자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.”고 말했다.

- 이재홍 TIPA원장은 “투자시장에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나 전통제조기업들은 상대적 약자이다.”며, “TIPA는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소외 분야에 속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.”고 전했다.